

# 宋代 四川 眉州의 지역문화와 蘇軾의 家鄉인식

李紀勳\*

---

## ◁ 목 차 ▷

---

- I. 서론
  - II. 宋代 眉州의 문화적 특징
    - 1. 偏僻된 地理와 풍습
    - 2. 詩書와 出仕의 성행
    - 3. 藏書와 出版의 발달
  - III. 蘇軾의 家鄉에 대한 인식
    - 1. 자부심의 대상
    - 2. 그리움의 대상
  - IV. 결론
- 

## I. 서론

明代 胡應麟은 《少室山房筆叢》에서 “무릇 책은 좋아하기만 하고 힘써 읽지 않는다면 헛되이 좋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릉의 〈集古錄跋尾〉를 기록한 것이다. 또 책은 취하기만 하고 읽지 않는 것은 헛되이 취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미산의 〈李氏山房藏書記〉를 기록한 것이다.”<sup>1)</sup>라고 하였다. 이는 李易安의 《金石錄》에 대한 평설로 藏書 못지않게 讀書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한 내용인데, 여기서 여릉은 구양수를 미산은 소식을 지칭한다. 두 사람의 이름을 고향으로 대체한 경우로 명대 부터 이미 소식을 미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호칭은 소식을 미산 출신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미산 출신이라고 하여 아무나 그 지명을 가지고 인명을 대신하여 부르지는 않는다. 그 사람은 지역을

---

\* 世明大學校 中國語學科 講師

1) 《少室山房筆叢》卷四〈經籍會通四〉: “夫書好而弗力, 猶亡好也. 故錄廬陵《集古序》. 夫書聚而弗讀, 猶亡聚也. 故錄眉山《藏書記》.”

대표할 수 있는 명망과 업적을 갖추어야 하고 그 지역은 해당 인물이 一家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 풍토가 인재를 키운다(一方水土, 養一方人)”는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한 지역의 지리·역사·풍습 등은 분명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역과 인물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시도한 바 있다. 가령 祝尙書는 三蘇와 같은 문학 대가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續資治通鑑長編》을 편찬한 李燾같은 유명 사학가를 대량 배출시킨 점에 착안하여 송대 미산을 사천의 문화중심지로 간주하고 미산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배경을 고찰하면서 이를 ‘眉山現象’이라 명명하였다.<sup>2)</sup> 이로 보아 미산은 확실히 송대의 문화 중심지였으며 중원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방문화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산에는 어떠한 지역문화가 있으며 그것이 미산을 대표하는 인물인 소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우선 송대 사천 眉州<sup>3)</sup>의 지역문화특징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소식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향 미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추후 미주의 지역문화가 소식에게 준 영향요소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宋代 眉州의 문화적 특징

### 1. 偏僻된 地理와 풍습

《漢書·地理志》에서는 사천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파군, 촉군, 광한군은 본래 南夷 지역으로 秦代에 병탄된 이후 郡이 되었다. 토지가 비옥하

2) 祝尙書, 《論宋代文化中的‘眉山現象’》(四川大學學報, 2004. 3. 106쪽): “송대에 미주가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되었고 특히 문학과 사학 분야에서 장기간 전국 최상의 지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가지고 ‘미산현상’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如果我們將眉州在宋代文化特別發達, 尤其是文學、史學長期處於全國領先地位的現象稱之爲‘眉山現象’, 大概不爲過分)”

3) 眉山은 고대에 淸州, 眉州, 嘉州 등으로 불렸다. 본고는 宋代 연구이므로 이후부터 당시 지명인 미주로 표기하겠다.

고 강수가 풍부하여 전답에 물을 대었으며, 산림과 대나무 채소와 과실이 풍부하였다. 南으로 滇과 棘지역에서는 僮僕이 많이 나오고, 西로 邛과 荊지역에서는 말과 털이 긴 소가 많이 나왔다. 백성들은 벼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였는데, 흉년의 근심이 없었으므로 그 습속이 걱정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쉽게 방종하며 체격이 유약하고 마음이 편협하였다.”<sup>4)</sup> 또 晉의 常璩가 지은 《華陽國志·蜀志》에서는 “촉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천리로 육지의 바다라고 불리었다. 가뭄이면 물을 끌어다 적었고, 우기에는 수문으로 물을 막았다. 그러므로 기록에 이르기를 홍수와 가뭄을 사람이 조절하니 기근을 알지 못하고 가뭄은 해가 없어 온 천하가 하늘의 창고라 불렀다”<sup>5)</sup>고 하였다. 이는 모두 사천지역이 예로부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천부의 땅이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하지만 사천은 비록 이같이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었지만 지리적으로는 여전히 변방에 속한 곳이었다. 즉 사천은 서고동저의 지형에서 동쪽의 중원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서쪽의 티베트 등 고산지대로 가기 전 마지막 분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폐쇄적인 지리였다. 때문에 역대로 사천을 오간 많은 문인들이 사천지역의 궁벽지고 험난한 지리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당대 시인 이백은 〈蜀道難〉이란 시에서 “촉으로 가는 길 험난하여, 청천하늘로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sup>6)</sup>라고 노래하였고, 북송 蘇洵은 〈上府倅吳職方書〉에서 “촉의 토지는 수많은 산으로 둘러 있고 커다란 강이 (해자처럼) 파져 있으며 기름진 전답이 수백으로 모여 그 가운데 서려(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천하의 땅에서 험준하면서도 비옥한 것으로는 촉지역 만한 곳이 없다”<sup>7)</sup>고 기술하였다.

풍부한 물산과 험준한 지형, 이러한 지리환경은 사천과 외지와 단절을 초래하였고 자연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만의 지

4) 《漢書》卷二十八〈地理志〉第八下：“巴、蜀、廣漢本南夷，秦并以爲郡，土地肥美，有江水沃野，山林竹木疏食果實之饒。南賈滇、棘僮，西近邛、荊馬旄牛。民食稻魚，亡凶年憂，俗不愁苦，而輕易淫泆，柔弱褊厄。”

5) 《華陽國志》卷三〈蜀志〉：“蜀沃野千里，號爲陸海，旱則引水浸潤，雨則杜塞水門，故《記》曰，水旱從人，不知饑饉，時無荒年，天下謂之天府也。”

6) 《李太白全集》卷之三〈蜀道難〉：“蜀道之難，難于上青天。”

7) 《全宋文》卷九二〇〈蘇洵〉〈上府倅吳職方書〉：“蜀之土，墻萬山，塹大江，膏田百同，蟠乎其中。故天下之地，險固沃美無如蜀者。”

역경제와 상대적으로 독립된 정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점차로 ‘분지문명’이라는 독특한 특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본래부터 거주해 온 토착세력들은 여러 대에 걸쳐 분지지역에서 생활하자 쉽게 안분자족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거처하는 땅에 집착하며 옮겨가기를 싫어하였고 정치의 중심과도 멀어졌다. 그러다가 당말 오대의 크고 작은 전란으로 인해 중원으로부터 유민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관해 《新五代史》에서는 “촉지방은 지형이 험준하면서도 물산이 풍부한데 당말에 많은 사인들이 왕건을 따라 피난을 가고자 하였다”<sup>8)</sup>고 하였고, 《資治通鑑》에서는 “이 시기 많은 당나라 사대부들이 촉지역으로 전란을 피해갔는데 촉주는 이들에게 예를 갖춰 기용하여 옛 제도를 시행토록 하였다. 그래서 (후촉)의 전장과 문물 제도에 당나라의 유풍이 많은 것이다”<sup>9)</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당시 북방인들이 대거 유입되었을 때 사천에서 成都府를 제외한 나머지 州 가운데서 眉州에서 받아들인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sup>10)</sup> 이는 아마도 이주민들이 여전히 전란의 영향이 미치는 성도보다는 좀 더 안전한 남쪽으로 岷江의 수려한 경치와 풍부한 물산을 갖춘 미주를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미주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대다수 귀족출신의 지식인들이데 피난을 온 이유에서인지 외부와 단절하고 주로 친족들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이들은 集居하는 방식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詩書의 家傳을 중시하여 부자 및

8) 《新五代史》卷六十三〈前蜀世家第三〉: “蜀恃險而富, 當唐之末, 士人多欲依建以避亂.”

9) 《資治通鑑》卷二百六十六〈後梁紀一〉〈太祖開平元年(九〇七)〉: “是時唐衣冠之族多避亂在蜀, 蜀主禮而用之, 使修學故事, 故其典章文物有唐之遺風.”

10) 劉琳, 〈唐宋之際北人遷蜀與四川文化的發展〉(《宋代文化研究》第2集, 四川大學出版社, 1992. 20쪽): “촉으로 들어온 사람의 대부분이 成都 平原과 眉州 일대에 정착하였다. 위에 거론한 97가지 예시 중 성도 및 성도부근에 자리 잡은 것이 45로 46%를 차지한다. 眉州에 자리잡은 것은 16으로 17%를 차지한다.(入蜀之人大部分定居於成都平原與眉州一帶, 上舉97例中, 家於成都及成都附近者45例, 占46%; 家於眉州者16例, 亦占17%.)”

粟品孝, 〈宋代四川主要學術家族述論〉(《宋代四川家族與學術論集》, 四川大學出版社, 2005. 43쪽): “이러한 가족들의 지역분포는 균일하지 않아서 普州 安岳 馮氏와 合州 巴川 陽氏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成都平原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에 집중되었고 그 가운데 미주지역이 가장 많았다.(這些家族的地域分布很不均衡, 除了普州安岳馮氏和合州巴川陽氏以外, 都集中在以成都平原爲中心的西部地區, 其中眉州地區最多.)”

형제가 자연스럽게 師弟간이 되는 일이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이다.<sup>11)</sup> 이로 인해 이들은 씨족을 중심으로 각각의 家法과 家風을 지닌 ‘家族文化’를 형성하게 된다. 미주 彭山 사람인 呂陶는 〈朝請郎新知嘉州家府君墓誌銘〉에서 고향의 가족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주는 사인들이 흥성한 것이 전후 양측에서도 으뜸인 곳이다. 대개 나이가 많은 유학자들은 학식이 깊고 덕행과 도의로 풍속을 장려할 수 있으며 자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가 있어 선행을 좇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은 계속하여 기풍과 법식을 따르고 군자가 되기를 추구하니 기풍을 계승하여 출사하게 됨에 이르므로 명망이 알려진 자가 많았다.

眉陽士人之盛甲兩蜀，蓋耆儒宿學，能以德行道義勵風俗，訓子孫，使人人有所宗仰而趨於善，故其後裔晚生，循率風範，求爲君子，以至承家從仕，譽望有立者衆.<sup>12)</sup>

史堯弼도 〈簡池守孫公哀詞〉에서 “내 고향 미주가 세상으로부터 중시 받는 것은 풍속이 두텁고 의론이 바르며 사대부에게 가법이 있어서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나가며 종종 후대에게 전수하고 지역 안에 퍼지게 하기 때문이다”<sup>13)</sup>라며 미주에 가족문화라는 특성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사실 봉건사회에서 집안의 가장을 주축으로 후손들이 기풍을 따르고 가학을 배우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어느 한 시대와 지역에 그러한 집안이 다수 존재하여 각기 다른 가학으로 다량의 인재를 배출하였다면 하나의 지역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송대 미주에는 가족문화가 두드러지는데 삼소를 배출한 蘇氏집안뿐 아니라 程文應·程浚·程之邵 등을 배출한 程氏집안 家勤國·家安國·家定國 등을 배출한 家氏집안, 任汲·任伯雨·任希夷 등을 배출한 任氏집안, 王當·王賞·王稱 등을 배출한 王氏집안, 楊大全·楊虞仲·楊棟 등을 배출한 楊氏집안, 李中·李濤 등을 배출한 李氏집안, 史清卿·史炤·史堯弼 등을 배출한 史氏집안 등이

11) 粟品孝, 〈宋代四川主要學術家族述論〉(2쪽): “他們不但保留着一些聚居的作風, 更重要的是注重詩書傳家, 父子兄弟自相師友的現象非常普遍.”

12) 《淨德集》卷二十三 〈朝請郎新知嘉州家府君墓誌銘〉

13) 《蓮峰集》卷十 〈哀詞〉〈簡池守孫公哀詞〉: “吾州所以重於天下者, 以風俗厚, 議論正, 士大夫有家法, 而子孫能世守, 往往可以傳後世、風州里.”

모두 그 예이다. 이 중 程文應의 여식은 소식의 모친인 程氏부인이고, 家勤國·家安國·家定國 삼형제는 소식·소철 형제와 어려서 동문수학하던 사이였으며, 史清卿은 소식형제의 스승으로, 가문끼리 여러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14)</sup>

한편 송대들어 점차로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밀집되자 자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갈등도 심화되었다. 때문에 중원으로 진출하여 출사와 입관을 꿈꾸는 선비의 입장에서는 편벽된 지역은 곧 극복과 탈출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사천 사람들에게는 모종의 특성이 형성되었는데 소순은 〈上張文定公書〉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촉이라는 지역은 토지는 좁고 사람은 많다. 비록 풍요로운 곳이라 불리지만 빈곤한 자들 역시 많다. 이 때문에 한 번 (의지 혹은 기회가) 꺾이면 그 운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수 십 년씩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원한이 많고 쉽게 동요하였다.”<sup>15)</sup> 또 〈上府倅吳職方書〉에서는 “인성이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재화를 과시하고, 비단과 면화가 성행하였다. …… 서남지역의 인성은 동북지역과는 더욱 달라서 保守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익을 추구하며 방탕한 것을 좋아하였다”<sup>16)</sup>라고 하였다. 《송사·지리지》에서도 “사치와 부미함을 숭상하고,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성격이며, 허황된 명성을 좋아한다”<sup>17)</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모두 사천의 지리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한이 많고(多怨), 쉽게 동요하며(易動), 교만하고 사치스럽고(驕侈), 이익을 추구하며(嗜利), 방탕한 것을 좋아하는(好蕩) 등의 의식과 풍습을 갖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서·지리지》에서도 이미 사천인들이 “풍자와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권세를 흠모한다”<sup>18)</sup>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편벽한 지리환경이 오랜 기간 현지인들의 인격과 풍습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듯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戰國시대 활동했던 縱橫家

14) 《眉州屬志》卷十九: “송대 미주의 소씨, 정씨, 가씨, 사씨집안이 유명한 성씨로 알려졌는데 그 중 사씨집안에 인제가 더욱 많았다(宋時眉州蘇、程、家、史, 是稱著姓 …… 而史氏尤多雋才.)”

15) 《全宋文》卷九二〇 〈上張文定公書〉: “夫蜀之境, 壤狹而民伙, 雖號富庶, 然亦貧匱者衆矣. 是以一撓之, 則不堪命者十數年, 故其人多怨而易動.”

16) 《全宋文》卷九二〇 〈上府倅吳職方書〉: “人性驕侈, 耀寶賄, 盛紈綿. …… 西南民性與東北尤異, 怯不能守, 嗜利而好蕩.”

17) 《宋史》卷八十九 〈地理志〉第四十二: “尚奢靡, 性輕揚, 喜虛稱.”

18) 《漢書》卷二十八 〈地理志〉第八下: “好文刺譏, 貴慕權勢”

들의 기풍과 매우 유사하다. 소식 평전을 쓴 林語堂<sup>19)</sup>이나 熊憲光<sup>20)</sup> 같은 학자들도 사천지역 사람들에게 종횡가 기질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자면 사천 미주는 풍부한 물산과 편벽된 분지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당말 오대에 전란을 피해 중원으로부터 사대부 집단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그들은 씨족을 중심으로 가학을 전수하는 '가족문화'의 풍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점차 사회가 안정되자 한정된 지역사회에서 탈피하고자 다시 중원으로 출사와 입관을 꾀하면서 사치와 이득을 좋아하고 권세를 흠모하며 풍자와 변론에 능한 '종횡기풍'을 갖게 되었다.

## 2. 詩書와 出仕의 성행

상술한 바와 같이 당말 오대이후 혼란한 정세로 인해 중원의 지식인들이 대거 사

19) 林語堂, 《蘇東坡傳》(百花文藝出版社, 2003, 23-24쪽): “사천 사람들은 일찍이 송대부터 인내심이 강하고 기민하고도 구변이 좋으며, 자신감과 자립심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은 멀리 편벽되어 떨어져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오래된 풍속과 문화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 당시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천 사람들은 논쟁에 탐닉하고 웅변의 문장을 좋아하였다. …… 소동파는 태생적으로 막힘없는 변론을 잘하여 언쟁을 하면 결코 지지 않았다. …… 동파와 그 부친은 적대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전국시대의 궤변 유세가들과 비슷하다고 얘기 들었다. 반면 친한 친구들은 그들이 맹자의 문장과 같은 웅변의 풍격을 갖고 있고 비유에 능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사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면 필시 걸출하고 비범한 것이다.(四川的居民, 甚至遠在宋代, 就吃苦耐勞, 機警善辯, 有自恃自治的精神, 他們像偏遠地區的居民一樣, 依然還保持一些古老的風俗文化. …… 在當年, 也和如今一樣, 四川的居民都耽溺於論爭, 酷愛雄辯的文章. …… 蘇東坡生而辯才無碍, 口舌之爭, 決不甘拜下風. …… 東坡和他父親, 被敵人攻擊時, 都比之爲戰國詭辯游說之士, 而友人則譽之爲有孟軻文章的雄辯之風, 巧於引喻取譬, 四川人爲律師, 必然杰出不凡.)”

20) 熊憲光, 《縱橫家研究》(重慶出版社, 1998, 308쪽): “당송시기 종횡특징이 강했던 저명한 문사로는 진자양, 조유, 이백 그리고 소순, 소식부자가 있는데 모두 촉지역 출신이다. 전국시대에는 ‘三晉에 권변에 뛰어난 사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당송시기에는 촉지역의 문사들이 종횡풍을 많이 따라 배웠다. 사실은 일찍이 서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시기 촉 출신의 문인들에게는 종횡 풍격이 많이 있었다.(唐宋時期富於縱橫特徵的著名文士陳子昂、趙蕤、李白及蘇洵、蘇軾父子均出蜀中. 戰國之時, ‘三晉多權變之士’; 而唐宋時期, 蜀中文士多師法縱橫. 其實早在西漢已開其端, 那時出自蜀中的文人就頗有縱橫之風了.)”

천으로 유입되었고 그 후손들이 가족문화를 형성하여 대대로 家學을 전수하게 된다. 그러면서 미주에서는 자연스럽게 詩書를 공부하고 향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大清一統志》의 〈眉州直隸州·風俗〉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선비는 명예와 절조로서 서로 드높이고 풍속은 옛 것에 가까운 것이 세 가지 있다. 사대부는 경학과 학술을 귀하게 여기고 씨족을 중시하고, 백성들은 관리를 존경하고 법률을 경외하며, 농부들은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짓는다.[宋 蘇軾의 〈遠景樓記〉에 나옴] 그 백성들은 시서를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집안마다 문헌을 중히 여겼다.[宋 〈謙樓記〉에 나옴]

士以名節相高, 俗近古者三 : 士大夫貴經術、重士族, 民尊吏而畏法, 農夫合耦以相助.[宋蘇軾遠景樓記] 其民以詩書爲業, 以故家文獻爲重.[宋謙樓記]<sup>21)</sup>

위에서 미주의 풍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대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조차 ‘業’으로 삼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시서를 공부하고 창작하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民國)眉山縣志》에도 “그곳(미주)의 백성들은 시서를 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집안마다 문헌을 중히 여기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글을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온다”<sup>22)</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서 당시 미주 사람들의 시서에 대한 열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서를 향유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으므로 미주에서는 때론 독서하는 일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보다도 중시되었다. 남송 李石은 〈眉州勸農文〉에서 “미주는 의관과 예의의 고향으로 士人 俗人 할 것 없이 독서로 경작하는 일을 대신하고 붓과 벼루로 부유함을 따지니 종종 농사일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곤궁해 진다해도 당시에는 죄가 되지 않았다”<sup>23)</sup>고 말하였다. 한편 남송 晁公邁의 〈今歲試士竟置酒起文堂延主司且作詩送之〉라는 시에는 “우리 미주의 풍속은 옛 것에 가까우니, 다른 지방과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음식은 조두같은 옛날 제기에 담고, 장사꾼들도 모두 시서를 취급한다”<sup>24)</sup>라는 표현이 있어 당시 미주에 시서가 얼마나 성행하였는지 가늠할 수

21) 《大清一統志》卷四百十

22) 《(民國)眉山縣志》〈民國12年〉: “〈謙樓記〉: 其民以詩書爲業, 以故家文獻爲重, 夜燃燈, 誦聲琅琅相聞.” 祝穆의 《宋本方輿勝覽》卷五十三 〈眉州〉에도 동일 기록이 있음.

23) 《方舟集》卷一八 〈眉州勸農文〉: “眉州爲衣冠禮義之鄉, 士俗以讀書爲耕, 以筆硯爲富, 往往薄於農桑. 窘索於衣食者, 非歲之罪也.”



있다. 남송 淳熙 5년 陸游는 三蘇故居를 방문한 뒤 “뛰어남을 품고 빼어남이 축적된 이 땅, 천 년 동안 시서의 도시로 번성하였네”<sup>25)</sup>라는 시를 짓는다. 물론 이 시는 소식에 대한 찬양이지만 현지의 시서를 중시하는 풍토가 소식이라는 걸출한 시인을 배출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유의 이 시구 속 ‘詩書城’이란 말은 이후 미주를 칭송하고 대변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송대 미주에서는 사대부에서 장사꾼까지 모든 계층에서 시서를 익히고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문하는 선비가 많이 출현하였다. 남송 王象之의 《輿地紀勝》에는 崇寧 2년 任熙明이 〈教授題名記〉에서 “축은 서남의 분지에 커다란 병풍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한대 이래로 사인이 많이 배출되는 곳으로 미주와 익주 두 곳 만큼 흥성한 곳이 없고 가주가 그 다음이다”라고 한 말을 싣고 있다. 또 政和연간 安岳主簿인 劉渭의 〈應廟記〉에 나온 “학문하는 자들의 흥성에 대해 논하자면 서쪽의 미주와 동쪽의 진주가 제일간다”라는 구절과 〈四賢堂記〉에 나오는 “劍南의 동쪽에 진이라는 주가 있는데 벼슬에 오른 자들이 많음은 서쪽의 미주와 병칭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sup>26)</sup> 모두 미주에 학문이 흥성하고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미주에 이렇게 문학과 학술을 중시하는 풍토가 마련되고 많은 선비들이 생겨나니 출사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본래 미주를 포함한 사천지역 사람들은 분지문명의 특성상 자신들이 오랫동안 거쳐해 온 지역에서 안분자족하며 타지로 이동하거나 중원으로 진출하기를 꺼려하였다.<sup>27)</sup> 하지만 당말 오대 이후

24) 《全宋詩》卷二 〈今歲試士竟置酒起文堂延主司且作詩送之〉: “吾州俗近古, 他邦那得如. 飲食猶俎豆, 佣販皆詩書.”

25) 《劍南詩稿》卷九 〈眉州披風榭拜東坡先生遺像〉: “孕奇蓄秀當此地, 鬱然千載詩書城.”

26) 《輿地紀勝》卷百四十六 〈成都府路·嘉定府〉: “蜀爲西南巨屏, 繇漢以來, 號爲多士, 莫盛於眉、益二邦, 而嘉次之.〔崇寧二年任熙明〈教授題名記〉〕”, 卷百五十八 〈成都府路·晉州〉: “論學徒之盛, 以西眉東晉爲稱首.〔〈應廟記〉〕”, 卷百五十八 〈成都府路·晉州〉: “劍南之東, 有州名晉, 冠帶之盛, 與西眉竝稱.〔〈四賢堂記〉〕”

27) 《宋史》卷八十九 〈地理志〉第四十二에서 사천지역은 “서당에 모여 배우는 자들은 많지만, 고향땅에 안주하며 벼슬하러 나가는 자들은 드물다. …… 문학을 하는 선비들이 훌륭히 배출되었다(庠塾聚學者衆, 然懷土罕趨仕進. …… 文學之士, 彬彬輩出焉.)”며 본래 학문의 열기는 대단하지만 출사하러 경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드물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중원의 지식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적 분위기가 만연되자 상호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권세와 이득을 추구하는 종횡기풍이 성행하였고 가문과 개인의 揚名을 위해 점차 중원의 정치중심지로 출사하는 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출사의 성과 역시 미주는 사천에서도 단연 우세하였다. 《(嘉慶)眉山屬志》의 〈選舉志〉에 송대 미주의 과거급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송이래로 과거제도로 사인을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당대의 제명은 성씨를 고증하기가 어렵다. 미주에서 과거급제는 송대만큼 흥성한 적이 없었다. 옛 志文과 안탑비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남송·북송 양조에서 갑과 을과에 합격한 자들이 팔백 십여 인이나 된다.

自唐宋以來，始以科舉取士。唐代題名姓氏莫可考已。眉州科第，莫盛於宋，攷舊志及雁塔碑所載，南北兩朝中，甲乙科者八百八十餘人。<sup>28)</sup>

위에서 ‘舊志’는 《地方志》 중의 〈選舉志〉를 말하는 것이고, ‘안탑비’는 당대 진사에 합격하면 西安 慈恩寺의 大雁塔 아래 비문에 명단을 새겨 넣은 풍습에서 비롯된 題名碑를 지칭한다. 《(民國)眉山縣志》〈選舉志〉에도 “당대이래 나라에서는 과거로 사인을 선발하였는데 미주지역의 과거급제자는 송대보다 흥성한 적이 없다. 옛 志文과 안탑비의 기록을 고증하면 갑을 두 과에 합격한 자들이 팔백 십 여인이나 된다<sup>29)</sup>”라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양송 300년 동안 미산에서 배출한 진사가 팔백 명 정도였는데 소식 형제가 진사시험에 참가했던 그 한 해에만 응시자가 50여 인이고 진사급제가 13명에 달했으니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과연 당시에 얼마나 출사가 성행하였는지 알 수 있다.<sup>30)</sup>

28) 《(嘉慶)眉山屬志》卷十〈選舉志〉

29) 《(民國)眉山縣志》卷七〈選舉志〉: “自唐以來，國家以科舉取士，眉之科第莫盛於宋。考舊志及雁塔碑載中，甲乙科者八百八十餘人。”

30) 《蘇軾文集》卷四十九〈謝范舍人書〉: “작년 예부에 응시한 사람이 모두 사오십 명이나 되는데 담당자와 매공(매요신)께서 친히 관여하시어 헤아려 비교해 보니 합격한 자가 열세 사람이나 되었다.(去歲舉於禮部者，凡四五十人，而執事與梅公親執權衡而較之，得者十有三人焉.)”

### 3. 藏書와 出版의 발달

송대 사천지역은 중원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하고 수공업이 흥성하여 시장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수공업 중에서도 특히 출판인쇄술의 발달은 독서인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 상술한 대로 중원의 지식인들이 유입되어 가족문화를 이루고 시서 학습 풍조와 출사를 성행시켜 많은 사인 및 문인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자연 서적을 중시하고 장서에 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실 미주에 장서문화가 성행한 것은 이미 당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唐 開元연간 미주사람 孫長孺라는 자가 풍부한 장서를 갖춘 것으로 유명하였다. 《宋史》에는 그의 후손 孫抃의 전기에 있는데 “손장유가 장서하는 것을 좋아하여 사람들은 ‘서루손씨’라고 불렀다. 그 자손들은 농사를 지어 생업을 유지하였는데 6대손 손변에 이르러 독서하고 글을 짓기 시작하였다”<sup>31)</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누각명은 ‘榜書樓’라 하였고 “나라 안에서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그를) 앞설 자가 없었다”고 평가받을 정도였다. 후에 僖宗이 ‘書樓’라는 두 글자를 하사하여 손씨의 서루는 더욱 유명해졌다.<sup>32)</sup> 남송 魏了翁의 〈眉山孫氏書樓記〉에 의하면 서루는 “오대시기 후촉이후로 재화로 훼손되어 魚鰾鎮으로 옮겨졌다. …… 손장유의 오대손인 孫降은 河洛유역에 자주 놀러 갔다가 즉위 전의 태조를 알게 되었다. 이후 건륭(북송 太祖의 연호)초에 궁에 부름을 받고 황제로부터 錦衣玉帶 및 규전을 하사받고 미주 별가란 관직을 제수받는다. 이로서 시장에서 만권의 서적을 구입해 귀향하였다. 하지만 서루는 아직 복구되지 못하였다. 별가의 손자인 손벽이 다시 경도로 들어가 황궁의 도서관에서 副本을 傳習받고 관본과 시장 판매 서적을 가득 싣고서 돌아와 다시 서루를 중수하고 장서하기 시작하였다”<sup>33)</sup>고 한다. 손장유가 서

31) 《宋史》卷二百九十二，列傳第五十一〈孫抃傳〉：“六世祖長孺，喜藏書，號‘書樓孫氏’，子孫以田爲業。至抃始讀書屬文。”晁公武의 《郡齋讀書志》卷第十九〈別集類下〉에서 ‘孫文懿集’三十卷에 관해 설명하는데 “송황조 시기 손변은 자가 몽덕으로 미산사람이다. 그의 육대조 손장유는 장서하기를 좋아하여 누각을 지어 저장했는데 측사람들이 ‘서루손가’라고 불렀다(皇朝孫抃字夢德，眉山人，六世祖長孺喜藏書，貯以樓，蜀人號‘書樓孫家。’)”라며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32) 《十駕齋養新餘錄》卷下：“孫長孺自唐僖宗爲榜書樓二字，國朝藏書者莫先焉，三百年間再毀於火。”

루를 만들어 만권을 장서한 이래로 여러 차례 소실되었지만 그 후손들은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서루를 복원시켜 가풍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렇게 손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장서 가풍은 이후 眉山전체로 확대된다. 미주 丹陵의 史子永<sup>34</sup>·孫道夫<sup>35</sup>·李燾<sup>36</sup>, 또 미주 靑神의 楊泰之<sup>37</sup> 등이 모두 그러한 영향을 받아 개인 장서를 활발히 행하여 지역의 학술과 문풍을 발전시켰다.

사천의 출판인쇄업 역시 이미 송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舊五代史·明宗紀》에 “당말 이래로 소재한 곳(촉)의 학교가 황폐화되자 촉의 毋昭裔는 사재 백만 전을 털어 학관을 운영하였고 또한 《九經》을 판각할 것을 주청하자 촉주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서 촉지역의 문화가 부흥하였다. …… 대략 당말에 점차적으로 인쇄본이 생겼는데 다만 아직 성행하지는 못하였다. 후인들은 마침내 촉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겼다”<sup>38</sup>라고 한 내용인데 이를 통해 사천지역의 출판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鄒重華는 사천의 민간장서 상황에 대해 “당말 오대 사천의 장서가 성행한 것은 피난을 떠난 장안의 사인들이 개인 서적을 가지고 촉으로 들어간 것과 사천의 조판인쇄술이 발달하였다는 두 가지 요인과 밀접

33) 《鶴山集》卷四十一〈眉山孫氏書樓記〉: “自僞蜀, 毀于災, 乃遷魚鰲, …… 長孫之五世孫降, 衷常遊河洛識藝祖皇帝于龍潛, 建隆初召至便殿, 賜衣帶圭田, 特授眉州別駕, 因市監書萬卷以還. 然樓猶未復也. 別駕之孫闢, 乃入都傳東壁西籬之副, 與官本市書捆載而歸, 卽所居復建重樓藏之.”

34) 《(民國)丹棱縣志》卷二〈史子永墓志銘〉: “자영은 관직을 얻는 데 연이어 낙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식을 가르쳤다. 살고 있는 집에 층을 올려 오경루라 부르고 만권을 장서하였다. 서루가 완성되자 세 아들은 모두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이로서 입관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子永連枉於有司, 不得志, 乃歸教其子. 所居室爲層屋, 號曰五經樓, 藏書萬卷, 旣而三子皆能卒業, 以成其志.)”

35) 《宋史》卷三百八十二, 列傳第一百四十一〈孫道夫傳〉: “관직 삼십년간 받은 봉급을 대부분 서적구입에 사용하였다.(仕宦三十年, 奉給多置書籍)”

36) 《宋史》卷三百八十八, 列傳第一百四十七〈李燾傳〉: “오직 수많은 서적들을 박학하고 백가의 이론을 수집 망라하여 분연히 史學者로 자임하였다.(獨博極載籍, 搜羅百氏, 慨然以史自任)”

37) 《宋元學案》黃氏門人〈大理楊克齋先生泰之傳〉: “대대로 가학이 있고 어려서는 황검산에서 수학하였으며 수만 권을 장서하였다(世有家學, 少受業於黃兼山, 藏書數萬卷)”

38) 《舊五代史》卷四十三〈唐書十九·明宗紀第九〉: “自唐末以來, 所在學校廢絕, 蜀毋昭裔出私財百萬營學館, 且請板刻《九經》, 蜀主從之. 由是蜀中文學復盛. …… 大概唐末漸有印書, 特未盛行, 後人遂以爲始于蜀也.”

한 관계가 있다”<sup>39)</sup>고 지적하였다. 즉 사천의 장서문화는 이미 당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역시 중원의 사대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량의 서적이 함께 들어오고 사천 지역 본연의 발달된 인쇄술이 만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송대로 들어서면서 지역의 안정된 사회 분위기가 재차 학문을 흥성시키고 출사를 장려하면서 장서와 출판이 더욱 성행하고 발전하게 것이다. 소식의 〈李氏山房藏書記〉란 글을 보면 당시 출판의 발전 정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나이가 지긋한 유학자를 만났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어렸을 때 《사기》나 《한서》 같은 책을 구하고자 해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요행히 구하게 되면 모두 손수 베껴서 밤낮으로 외우고 읽었으니 이는 그런 책을 다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상인이 서로 둘러가며 제자백가의 서적을 모각하니 하루면 만장이 전해져서 배우는 자들은 책에 있어서는 많고도 쉽게 구할 수 있다.

余猶及見老儒先生，言其少時，欲求《史記》、《漢書》而不可得，幸而得之，皆手自書，日夜誦讀，惟恐不及。近歲市人轉相摹刻諸子百家之書，日傳萬紙，學者之於書，多且易致如此。<sup>40)</sup>

위 내용으로 보아 소식이 초년에 독서하던 시기에는 이미 미주의 출판인쇄술이 상당히 발달하여 다량의 서적이 유통되었으므로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sup>41)</sup> 남송시기 미주 知州를 지낸 晁公遡의 〈眉州州學藏書記〉에는 “미주 고을의 문장이 풍부한 것은 여러 유생들의 언사 때문만이 아니고 이로서 서적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그 부수가 베포된 것이 사방에 넘쳐났다”<sup>42)</sup>라며 미주에서 출판된 서적이 사방에 유통되고 있음을 얘기하였다.

39) 鄒重華. 〈宋代民間藏書與地方文化發展之關係：以四川地區爲例〉；《宋代四川家族與學術論集》(四川大學出版社，2005. 464쪽)：“唐末五代四川藏書之盛，與避亂的長安人士携書入蜀和四川的雕版印刷發達這兩大因素密切相關。”

40) 《蘇軾文集》卷十一〈李氏山房藏書記〉

41) 楊榮新(《唐宋時期四川雕版印刷考述》. 文博. 2003. 2. 69쪽)이나 吳梁紅(《宋代眉山雕版印刷概說》. 文史雜誌. 2004. 1. 17쪽)같은 학자들도 송대 사천지역의 출판인쇄술의 발달에 대해 논할 때 소식의 〈李氏山房藏書記〉를 인용하고 있다.

42) 《嵩山集》卷五十：“郡之富於文，不獨諸生之言辭爲然，蓋文籍於是乎出，至布於其部，而溢於四方。”

이렇게 하여 북송 말년에 이르러서는 개봉 등 중원의 출판중심지가 사천으로 이동하게 되어, 杭州·建陽과 더불어 삼대 출판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남송 葉夢得도 《石林燕語》에서 “오늘날 천하의 인쇄업은 항주가 으뜸이고 촉 판본이 그 다음이며 복건이 가장 하급이다. 경사의 최근 인쇄업은 거의 항주에 뒤처지지는 않지만 종이의 질이 좋지 못하다. 촉과 복건지역은 대부분 오동이나 가래나무 같은 부드러운 재목으로 판각을 해서 쉽게 제작하여 빨리 판매한다. 그러므로 기술이 좋지 않다. 복건판본이 거의 천하에 널린 것은 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3)</sup>라며 사천의 인쇄업이 당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항주에 못지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미산에서 소식과 같은 대문호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장서와 출판문화가 발달하여 학문에 어려움이 없는 조건과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Ⅲ. 蘇軾의 家鄉에 대한 인식

이처럼 심원한 미주의 지역문화풍토는 분명히 소식의 품성과 사상 그리고 문학풍격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그 영향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 먼저 소식의 문장을 통해 그가 고향 미주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소식 자신이 고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살펴본다면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논할 때 관련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식의 문장 중에는 미주 자체를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삼은 내용이 많지 않다. 아래에서는 소식 시문 중 고향 미주를 언급한 내용을 최대한 추출하여 대략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 1. 자부심의 대상

遠景樓는 미주 知州인 黎希聲의 주도로 元豐 원년(1078)에서 원풍 7년까지 약

43) 《石林燕語》卷八：“今天下印書，以杭州爲上，蜀本次之，福建最下。京師比歲印板，殆不減杭州，但紙不佳；蜀與福建多以柔木刻之，取其易成而速售，故不能工；福建本幾徧天下，正以其易成故也。”

6년간에 걸쳐 완공된 미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건립 당시 소식은 徐州 지주였고 위치적으로 가까워 서신을 통해 미주의 지인들과 자주 왕래하였다. 그러던 중 선친의 친구이자 고향 미주의 지주인 여회성의 명망을 접하게 되고 원경루의 記文을 부탁받게 된다. 소식은 흔쾌히 허락하였고 원경루는 이 문장으로 인해 더욱 세상에 유명해졌다. 소식은 〈眉州遠景樓記〉에서 원경루의 건립 연유와 경위에 대해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반부에서 미주의 풍속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향에 대한 그의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내 고향의 풍속은 옛것에 가까운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곳의 사대부는 경학과 학술을 귀하게 여기고 씨족을 중시하고, 백성들은 관리를 존경하고 법률을 경외하며, 농부들은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짓는다. 대개 삼대·한·당의 유풍이 남아 있음은 다른 군현에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이다. 당초 조정에서는 詞賦로서 진사를 선발하고자 하는데 천성연간 이전에 다른 지역 학자들은 오대이후의 화려하고 부미한 문풍의 폐습만을 좇고자 할 때 오직 우리 고향의 선비들은 경서에 능통하고 고문을 학습하며 서한의 문장을 종사로 삼았다. 그때 사방에서 (우리 고향 풍속이) 옛것에 얽매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군현의 서리들조차 모두 경서를 옆에 끼고 필묵을 휴대하며 응대하고 나가고 물러서는 행동거지가 족히 볼만하다. 대가족과 현귀한 집안의 사람들은 문벌과 씨족으로 서로 따져서 갑을로 (우열의) 순서를 두는데, 모두 일정한 품이 있으며, 이를 江鄉이라고 칭한다. 이 씨족이 아니면 아무리 귀하고 또 부유할지라도 혼인을 상통하지 않았다. …… (상인들도) 항시 집안에 율령집을 소장하여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항시 통독한다.

吾州之俗，有近古者三。其士大夫貴經術而重氏族，其民尊吏而畏法，其農夫合耦以相助。蓋有三代、漢、唐之遺風，而他郡之所莫及也。始朝廷以聲律取士，而天聖以前，學者猶襲五代之弊，獨吾州之士，通經學古，以西漢文詞爲宗師。方是時，四方指以爲迂闊。至於郡縣胥史，皆挾經載筆，應對進退，有足觀者。而大家顯人，以門族相上，推次甲乙，皆有定品，謂之江鄉。非此族也，雖貴且富，不通婚姻。…… 家藏律令，往往通念而不以爲非。<sup>44)</sup>

소식은 고향에 사는 사대부, 상인, 농부 각 계층이 본업을 행하는 데 있어 그 방식이 옛 것과 가깝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열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장에서 언급했던 미주의 지역문화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소식 역시 자신의 고향

44) 《蘇軾文集》卷十一 〈眉州遠景樓記〉

에 씨족을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강하고, 경서에 능통하고 고문을 학습하는 학문 풍토를 지녔으며, 하급 관리조차 경서를 옆에 끼고 다니고 상인들도 집안에 법률서적을 구비해 놓고 향시 읽을 정도로 서적을 중시하고 널리 보급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소식은 비록 타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폄하하지만 서한의 문장을 따르는 고향의 보수적인 학문 풍토를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고박한 문풍이 결국 당시 미주의 士인들이 다량으로 진사에 급제할 수 있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닌가 싶다. 明人 茅坤은 《蘇文忠公文鈔》에서 이 문장에 대해 “편적 문인이 고향을 생각하니 정취가 완연하다. 또 당순지는 이 문장에서 주창한 구상방법 역시 기이하여 (그 중심이) 누각을 짓고 원경에 관해 말하는 데 있지 않다고 평하였다”<sup>45)</sup>라고 評說하고 있다. 즉 원경루에 대한 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누각과 경치에 대한 묘사나 감상보다는 이를 빌어 고향의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술회를 유감없이 토로한 소식의 愛鄉心을 지적한 것이다.

위 〈미주원경루기〉 못지않게 미주의 학풍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문장으로 〈謝范畬人書〉가 있다.

문장의 기풍은 오직 漢代가 가장 흥성했다. 그러나 지위가 높고 귀하며 유명하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蜀지방 사람들이 많다. 司馬相如가 앞에서 선창을 하자 王褒가 뒤를 계승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관을 높이 쓰고 쾌욕을 끌며 커다란 수레에 네 필의 말을 갖추고 마을 가운데를 행렬했다는 것은 蜀人들도 학문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두 사람의 거문고 소리와 시를 짓는(학문과 교화) 명성은 鄒나 魯나라에 비할 수 있었다. …… 천성연간에 백부께서 포의를 벗고(급제하여) 귀향하시자 향인들이 감탄을 하며 구경나온 자들로 길이 막힐 정도였다. 그 후로 관리와 여러 공들이 계속하여 조정에 오르게 되므로 문장의 업적이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서 고향에서 농기구를 버리고 (공부를 위해) 붓과 벼루를 드는 자들이 열집 중 아홉이나 되었다. 서한에 비교하자니 지나치게 먼 것 같고 또한 촉에 군이 수십 군데가 있는데 내가 감히 멀리 타지까지 끌어들이기는 어렵고 통의라는 촉의 작은 주와 미산이라는 현을 예로 들어보겠다. 작년 예부에 응시한 사람이 모두 사오십 명이나 되는데 담당자와 매공(매요신)께서 친히 관여하시어 헤아려 비교해 보니 합격한 자가 열세 사람이나 되었으니 다른 분야도 어느 정

45) 《蘇文忠公文鈔》卷二十五：“遷客思故鄉，風緻婉然。又唐順之評：此文造意亦奇，更不在作樓與遠景上說。”



도인지 알 수 있겠다.

文章之風，惟漢爲盛。而貴顯暴著者，蜀人爲多。蓋相如唱其前，而王褒繼其後。峩冠曳佩，大車駟馬，徜徉乎鄉閭之中，而蜀人始有好文之意。弦歌之聲，與鄒、魯比。……天聖中，伯父解褐西歸，鄉人歎嗟，觀塞塗。其後執事與諸公相繼登於朝，以文章功業聞於天下。於是釋耒耜而執筆硯者，十室而九。比之西劉，又以遠過。且蜀之郡數十，軾不敢遠引其他，蓋通義蜀之小州，而眉山又其一縣，去歲舉於禮部者，凡四五十人，而執事與梅公親執權衡而較之，得者十有三人焉。則其他可知矣。<sup>46)</sup>

소식은 한대는 문장 기풍이 최고조였던 시기로 고향의 선비들도 모두 서한의 문장을 중사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 가운데 사마상여와 왕포같은 사천출신의 걸출한 문인들이 특히 명성을 드높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는 고향의 문풍이 당시부터 이미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고향의 심원한 학문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고향사람들이 농사보다는 독서에 열중하며 과거급제를 통해 그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량으로 드러냈다. 여기서도 당시 미주에서 학습열기와 출사가 얼마나 성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식은 고향 미주에 대한 자부심 못지않게 가문에 대한 자부심 역시 강했던 것 같다. 〈蘇廷評行狀〉은 부친 소순의 〈蘇氏家譜〉와 더불어 삼소 가문의 내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인데 자신의 소씨 가문이 미주지역의 학문을 선도하였다는 자부심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내가 듣기에 오대 전란 이후부터 촉의 학문하는 사람이 줄었고 또 모두 친척과 향당을 돌보느라 감히 출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공(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아들 환에게 배우도록 명하셨으니 권도하여 성취한 것이 이루지 못한 것이 없게 되었다. 마침내 백부 환이 진사에 급제하여 관직을 얻어 귀향하니 향촌의 어르신들이 이를 영광으로 바라보고 자손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 소씨 가문을 본보기로 삼았다. 이로부터 촉지역에서 학문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 천여 명에 이르렀다.

聞之，自五代崩亂，蜀之學者衰少，又皆懷慕親戚鄉黨，不肯出仕。公始命其子渙就學，所以勸導成就者，無所不至。及渙以進士得官西歸，父老縱觀以爲榮，教其子孫者皆法蘇氏。自是眉之學者，日益，至千餘人。<sup>47)</sup>

46) 《蘇軾文集》卷四十九〈謝范舍人書〉

위 〈사범사인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부 蘇序의 남보다 앞선 교육의식으로 인해 백부 소환이 일찍부터 학문의 길에 접어들었고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의 학풍과 학구열을 부흥시켰다고 말한다.<sup>48)</sup> 아무튼 당시 사천 미주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편벽하였지만 그 어떤 지역보다 학문적 열기가 대단하여 출사하여 입신양명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소식의 마음 속에는 고향의 문화 풍토는 그야말로 자부심 그 자체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심원한 문풍을 부활시킨 것이 자신의 소씨 집안이었으므로 고향과 집안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고향의 경학과 고문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학풍은 소식의 문풍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소식이 경전과 역사에 박학다식하여 많은 史論을 남기고 시문에 전고를 자유롭게 구사한 것은 모두 이러한 결과일 것이다. 嘉祐 2년 22세의 소식이 진사에 응시하여 〈刑賞忠厚之至論〉을 짓고 이것이 당시 고문운동을 통해 오대이후의 조탁 화려한 수식위주의 문풍을 개혁하고자 하였던 主考官 歐陽脩의 눈에 띄어 2등으로 급제한 것 역시 소식이 고향의 고박한 문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2. 그리움의 대상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 중 부모형제와 유년시절을 회상하며 고향을 그리워 하지 않은 자는 없을 것이다. 소식 역시 22세에 출사하여 고향을 떠나 생활하였고 또한

47) 《蘇軾文集》卷十六〈蘇廷評行狀〉

48) 蘇轍도 〈伯父墓表〉에서 “백부(蘇渙)께서 등과하시자 향인들이 모두 이를 기뻐하여 맞이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백리 밖까지 끊이지 않았다(登科, 鄉人皆喜之, 迎者百里不絕.)”고 하였고, 또 “은 마을 사람들이 혼연히 이를 부러워하였고 배우는 자들은 이때부터 계속하여 배출되어 오늘날은 출사한 자들이 항상 수백 인이 되고 과거를 준비하는 자들은 항상 수천 인이나 되는데 모두 공을 으뜸으로 칭하였다(一鄉之人欣而慕之, 學者至是相繼輩出, 至於今, 仕者常數十百人, 處者常千數百人, 皆以公爲稱首.)”고 진술한다. 曾鞏 또한 〈蘇序墓志銘〉에서 “소환이 진사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자 촉지역 사람들은 이를 영광으로 삼고 의식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모두 학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 이후로 미주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천여 명에 이르렀으니 대개 소씨 집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渙以進士起家, 蜀人榮之, 意始大變, 皆喜受學. 及其後, 眉之學者多至千餘人, 蓋自蘇氏始.)”라고 소씨 집안이 미주의 학풍을 선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政爭으로 평생 타지로 폄적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문에서 고향 미산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소식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현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때 마다 그 감상을 유려한 필체로 남겼는데 이때도 늘 고향의 산수를 잊지 않았다. 가령 嘉祐 8년 鳳翔에서 簽書判官을 역임할 때 주변의 명승지를 유람하며 〈鳳翔八觀〉을 지었는데, 그 중 東湖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면서도 그 첫 구절은 “우리 집은 촉의 강가에 있는데, 강물이 쪽빛처럼 맑았네”<sup>49)</sup>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는 동호의 물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촉강마냥 맑은 것을 보고 호수에 배를 띄우고 놀면서 마치 꿈속에 고향에라도 돌아간 것과 같은 기분을 노래한 것이다. 또 고향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고향의 산수를 얘기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기도 하였다. 아래 〈秀州報本禪院鄉僧文長老方丈〉을 살펴보자.

萬里家山一夢中, 만리나 떨어진 가향의 산수 꿈속에서나 볼 수 있고,  
吳音漸已變兒童. 아이의 말투는 점차 이곳 오지방 사투리로 변해가네.  
每逢蜀叟談終日, 촉출신 노인을 만나기만 하면 종일토록 고향 얘길 나누고,  
便覺峨眉翠掃空. 아미산의 (수려한)비취빛을 생각하니 공허함이 셋기네.<sup>50)</sup>

熙寧 4년 소식은 왕안석과의 정치적 불화로 杭州通判을 자임하게 되고 이듬해 秀州(지금의 浙江 嘉興)에 갔다가 永樂의 報本禪院에서 同鄉인 文及이란 승려를 만나게 된다. 윗 시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관직생활을 하던 소식이 잠시 한직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우연히 동향사람을 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이를 통해 政務의 피곤함을 씻어버리고자 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소식은 熙寧 6년에 常州에 이재민을 구휼하러 갔다가 다시 보본선원에 들리는데 이때 〈夜至永樂文長老院, 文時臥病退院〉<sup>51)</sup>이란 시를 다시 지어 外병중인 문급에 대한 걱정과 위로를 하였

49) 《蘇軾詩集》卷三 〈鳳翔八觀, 并敘, 其一〉〈東湖〉: “吾家蜀江上, 江水清如藍.”

50) 《蘇軾詩集》卷八 〈秀州報本禪院鄉僧文長老方丈〉

51) 소식은 이 시를 지어 外병중인 문급에 대한 걱정과 위로를 하였는데 그 구절 중 “고향 땅에 대한 회상이 아니고 우리의 정이 서로 합치했기 때문이지요, 外병으로 법당을 열어 설법을 할 수는 없지만 도력은 더욱 존경을 받게 되었군요(老非懷土情相得, 病不開堂益益尊.)”라고 하였다. (《蘇軾詩集》卷十一) 여기서 ‘懷土’는 고향땅을 회상하고 그리워함을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친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 〈秀州報本

다. 또 이듬해 5월 다시 항주로 돌아가던 중 문급이 入寂했다는 소식을 듣고 〈過永樂文長老已卒〉이란 시를 지어 동향 사람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였다. 그는 이 시에서 “살고 죽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습관되어 눈물도 나오지 않지만, 고향은 잊기 어려워 오히려 마음 속에 남네”<sup>52)</sup>라며 타향에서 고향사람을 잃은 침울한 마음과 이 때문에 더더욱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소식이 희녕 원년 부친상을 마치고 고향을 떠난 뒤 평생 타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갔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소식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종종 어릴 적 생활하던 모습을 회상하곤 하였다. 가족과 함께 살던 本家와 이리 저리 누비고 다니던 고향산천에서 벌어졌던 일화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유년 시절의 그리움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記先夫人不殘鳥雀〉이란 문장을 살펴보자.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 書室 앞에는 대나무와 측백나무 및 화초가 무성하게 자라 온 정원에 가득하니 새떼들이 등지를 틀었다. 선부인께서는 살생을 싫어하시어 아이들과 하인들에게 새를 잡지 말라 명했다. 몇 년이 지나자 새들이 등지를 아래쪽 가지에 까지 틀어 몸을 숙이면 그 새끼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는 성심으로 이물을 대했기 때문이다. …… 이로 보아 다른 때는 새들이 감히 사람 사는 곳 가까이 등지를 짓지 않은 것은 뱀이나 쥐같은 포식자들보다 무서웠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혹독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말은 정말 믿을 만하다!

少時所居書堂前，有竹柏雜花叢生滿庭，衆鳥巢其上。武陽君惡殺生，兒童婢僕，皆不得捕取鳥雀。數年間，皆巢於低枝，其覈可俯而窺。……此無他，不伎之誠信於異類也。……由是觀之，異時鳥雀巢不敢近人者，以人爲甚於蛇鼠之類也，苛政猛於虎，信哉!<sup>53)</sup>

소식은 7세에 향교에 들어가 수학하기 전 주로 모친 정씨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어머니의 훈육은 소식의 인격과 품성의 형성에 절대적으

禪院鄉僧文長老方丈)를 통해서도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마도 반어적인 표현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동향을 넘어섬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다.

52) 《蘇軾詩集》卷十一 〈過永樂文長老已卒〉: “存亡慣見渾無淚，鄉井難忘尚有心。”

53) 《蘇軾文集》卷七十三 〈記先夫人不殘鳥雀〉

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sup>54)</sup> 윗 글은 집앞 정원에 있던 새둥지와 이를 함부로 잡지 못하게 했던 모친에 대한 작은 일화를 기록한 것이지만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친 정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禮記》〈檀弓下篇〉에 나오는 ‘苛政猛於虎’과 같은 고사를 거론한 것을 보면 중앙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지방관을 자처하며 愛民官으로서 칭송받게 된 것은 모두 소시적 고향생활과 집안의 훈육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식은 또 어려서 고향땅에서 가사를 돕던 일상생활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戲作種松〉에서는 “옛날 내가 어릴 적에, 동쪽 언덕에 온통 소나무를 심었네. 처음에는 한 마디밖에 안되는 뿌리를 옮겨 심는데, 자랄하기가 모종 심는 것 같았네”<sup>55)</sup>라고 하였고, 〈書晁說之考牧圖後〉에서는 “나 옛날 들관(향촌)에 살며, 그저 소양만 기를 줄 알았네. 평평하고 너른 소 등의 평안함은, 마치 백 휘나 되는 배 탄듯 하고, 주인 없이 가는 배는 절로 움직이고, 내가 누워 책 읽어도 소는 모르더라”<sup>56)</sup>라고 하였다. 때론 농사일로 힘들었지만 때론 전원의 한가로움을 즐기기도 하였던 소식의 글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나온다. 또 〈和子由蠶市〉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蜀人衣食常苦艱, 촉지역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늘 어려웠지만,  
蜀人游樂不知還. 촉지역 사람들은 놀고 즐기느라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네.  
千人耕種萬人食, 천 명이 경작하여 만 명이 먹고 살았고,  
一年辛苦一春閑. 일년 내 고생하다 봄 한철만 한가하네.  
閑時尚以蠶爲市, 한가할 때도 양잠을 하여 시장을 여니,  
共忘辛苦逐欣歡. 모두들 고생을 잊고 기쁨을 누린다네.

.....

憶昔與子皆童丱, 그 옛날 너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年年廢書走市觀. 해마다 책을 덮고 시장에 나가 구경했었지.

54) 줄고 〈家學을 통해 본 蘇軾 文風形成 고찰〉(한문교육연구. 2006. 06)에서 고향 사천의 문화풍토와 부모의 薰陶가 소식의 戰國縱橫문풍 형성에 영향을 준 내용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55) 《蘇軾詩集》卷二十 〈戲作種松〉: “我昔少年日, 種松滿東岡. 初移一寸根, 瑣細如插秧.”

56) 《蘇軾詩集》卷三十六 〈書晁說之《考牧圖》後〉: “我昔在田間, 但知羊與牛. 川平牛背穩, 如駕百斛舟. 舟行無人岸自移, 我臥讀書牛不知.”

.....

詩來使我感舊事, 네가 보낸 시가 와서 옛날 일을 생각하게 만드니,  
不悲去國悲流年. 고향을 떠나서 슬픈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슬프구나.<sup>57)</sup>

이 시는 아우 소철의 〈記歲首鄉俗寄子瞻二首〉에 차운한 시 가운데 하나이다. 소식의 기억에 고향사람들은 농사일로 늘 노곤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매우 낙천적이었다. 이러한 기질 역시 소식이 험난한 껍적생활을 초연한 자세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아우가 보낸 시로 인해 옛날 고향에서 지내던 일을 회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리움을 자아내게 하였다. 마지막 구절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적 회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간적 회귀보다 더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sup>58)</sup> 소식은 어려서부터 농사와 목축을 직접 경험하며 전원생활의 득실을 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육체노동의 어려움과 貧寒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훗날 지방관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어려운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V. 결론

본고는 송대 문인 소식의 고향 미산의 지역문화와 고향에 대한 소식의 인식을 고찰한 작업이다. 필자는 한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과 풍습이 지역출신 문인의 품성과 문풍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에서 본고를 시작하였다. 송대 사천 미주는 당말 오대 이후 전란으로 인해 중원의 문인사대부들이 대량으로 이주한 곳으로 분지라는 지리적 조건과 이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이 어우러져 '가족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후 사회가 안정된 후 재차 출세와 권변을 추구하는 '종횡기풍'이 만들어졌다. 씨족을 중심으로 詩書를 전수하는 가풍의 영향으로 미산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詩書학습에 열중하였고 자연 입신양명을 위한 出仕가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본래 藏書가풍이 있던 손씨 집안의 전통을 바탕으로 학문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자 서적의 수집과 유통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는 인쇄술의 발전과 맞물려 결국

57) 《蘇軾詩集》卷四〈和子由蠶市〉

58) 柳種睦譯註《완역蘇軾詩集 1》(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84쪽) 해설

미주는 출판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이처럼 심원한 지역문화는 당시 지리적으로 오지에 가까운 사천 미산에서 당대에 가장 명성을 날린 소식이란 대문호를 낳게 되었고, 미주라는 지명은 소식을 대칭하는 명사로 사용됨에 이른다. 당시 미주의 학술적 풍토와 전통이 얼마나 심원하고 대단하였는지는 소식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었다.

元 仁宗 延祐 3년(1316), 고려의 李齊賢은 忠宣王의 명을 받아 사천의 峨嵋山에 進香을 하러 간다. 이때 소식의 고향인 미산을 지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짓는다. “미산이 궁벽하게 하늘 한 모퉁이에 있는데, 온 성에 우거진 초목 가을 바람에 쓸쓸하구나. 지나가는 나그네 말을 멈추고 꼭 묻게 됨은, 길가에 삼소당이 있기 때문이라오. 훌륭한 삼소가 때를 맞추어 태어나니, 한 문호의 좋은 기운 활짝 열렸네. 어른은 악와의 천리마처럼 독보로 되었고, 두 아들은 단혈에 봉황처럼 쌍으로 날았네. 잇달아 날리면서 금문에 들어가니, 천하에 문장들 감히 입을 벌릴 수 없었네.”<sup>59)</sup> 비록 낮은 이방인이지만 사천의 자연경관과 인문환경을 몸소 느끼고 이러한 지역문화가 소식이란 걸출한 문인을 탄생시켰음을 인지하고 미산과 삼소를 찬양한 것이다. 이처럼 한 지역의 문화를 파악하는 일은 지역출신 문인의 인성과 문풍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향후 좀더 많은 소식의 작품을 통해 고향 미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차후 이를 통해 소식의 문풍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 【參考文獻】

- 班固, 顏師古注, 《漢書》, 中華書局, 1997.  
 常璩, 《華陽國志》, 文淵閣四庫全書 463,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7(1968).  
 薛居正等撰, 《舊五代史》, 中華書局, 1995.

59) 《益齋亂稿》卷第一〈眉州〉: “眉山僻在天一方, 滿城草木秋荒涼. 過客停驂必相問, 道傍爲有三蘇堂. 三蘇鬱鬱應時出, 一門秀氣森開張. 渥注獨步老駢驥, 丹穴雙飛雛鳳凰. 聯翩共入金門下, 四海不敢言文章.”

- 歐陽脩，徐無黨注，《新五代史》，中華書局，2002。
- 脫脫等撰，《宋史》，中華書局，1997。
- 司馬光，胡三省音注，《資治通鑑》，中華書局，1996。
- 蘇軾，孔凡禮點校，《蘇軾文集》，中華書局，1999。
- 蘇軾，孔凡禮點校，《蘇軾詩集》，中華書局，1999。
- 曾棗庄、劉琳主編，《全宋文》，巴蜀書社，1992。
- 呂陶，《淨德集》，文津閣四庫全書 367，商務印書館，2005。
- 史堯弼，《蓮峰集》，文淵閣四庫全書 1165，商務印書館，民國72。
- 李石，《方舟集》，欽定四庫全書，珍本初集 297，商務印書館，1969。
- 魏了翁，《鶴山集》，文津閣四庫全書 392，商務印書館，2005。
- 晁公遡，《嵩山集》，文津閣四庫全書 380，商務印書館，2005。
- 王象之，《輿地紀勝》，續修四庫全書 585，上海古籍出版社，1999。
- 葉夢得，宇文紹奕考異，侯忠義點校，《石林燕語》，中華書局，1997。
- 涂長發修，王昌年纂，《（嘉慶）眉州屬志》，中國地方志集成 四川府縣志輯 39，巴蜀書社，1992。
- 王銘新等修，楊衛星·郭慶琳纂，《（民國）眉山縣志》，中國地方志集成 四川府縣志輯 39，巴蜀書社，1992。
- 錢大昕著，陳文和、孫顯軍校點，《十駕齋養新餘錄》，江蘇古籍出版社，2000。
- 穆彰阿等纂修，《大清一統志》續修四庫全書 621，上海古籍出版社，1995。
- 鄒重華、粟品孝，《宋代四川家族與學術論集》，四川大學出版社，2005。
- 劉琳，〈唐宋之際北人遷蜀與四川文化的發展〉，《宋代文化研究》第2集，四川大學出版社，1992。
- 祝尚書，〈論宋代文化中的‘眉山現象’〉，《四川大學學報》，2004. 3。

### 【中文提要】

該文主要考察宋代文人蘇軾之家鄉眉山的地域文化與蘇軾對於故鄉的認識。筆者着眼于一個地方保有的傳統及風習對地方出身文人的品性及文風有一定的影響的問題，而開始準備這個研究。

宋代四川眉州是唐末五代以後避開戰亂的文人士大夫最多移住的地方之一。盆地的地理條件與流民的文化素養配合起來，形成瞭一種‘家族文化’。以後，隨着社會安定再形成瞭重視出世與權變的‘縱橫氣風’。由于以氏族為中心傳



受詩書家風的影響，眉山的家家戶戶都專心學習詩文，并且自然盛行出仕。在孫家的藏書遺風的基礎上，又文人書生增大，也蒐集書籍寬闊。與印刷技術的發展，最後眉州成爲瞭一所出版中心地。如此深遠的地方文化一定影響到大文豪蘇軾，而眉州這個地名就成爲瞭蘇軾的別稱。

高麗李齊賢奉命替忠宣王到四川峨嵋山進香。四川的各种自然、人文景觀以及深厚的文化底蘊給李齊賢帶來了創作的灵感，此間他創作了大量詩詞，〈眉州〉詩就是其中的經典之作。他詩文中說：“眉山僻在天一方，滿城草木秋荒涼。過客停驂必相問，道傍爲有三蘇堂。三蘇郁郁應時出，一門秀气森開張。渥洼獨步老騏驎，丹穴双飛雛鳳凰。”雖然從外地來的一個生客，但他親自體驗四川的自然景觀及人文環境后，認識到由于深遠的地域文化輩出一個傑出文人蘇軾的事實，即讚揚眉山與三蘇。從此可知，眉山與蘇軾，確實有一個不可分的影響關係。

### 【主題語】

四川，眉州，地域文化，蘇軾，家鄉認識，偏僻地，家族文化，戰國縱橫風，詩書，出仕，藏書，出版

투고일: 2011. 1. 25 / 심사일: 2011. 2. 1~2. 12 / 게재확정일: 2011. 2. 15